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계명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지켰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된다. 그 배경은 구체적으로 계명이 명시한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음에서 온다. 살인도 마찬가지이다.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흔한가? 그렇기에 당신은 살인자라 말하면 찔쩍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주목해 보자. 결코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범위는 그리고 그 결과들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안하는 두 가지 실천적 예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살인의 문제를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문제로 그리고 더욱 깊게 다른 이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끌고 가신다. 화해하지 못한 일이,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일이 어찌 살인과 동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 종교적인 이상주의에 근거한 선언이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과연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렇다. 우리 주님은 일차적으로 철저히 모두가 죄인일 수 밖에 없음을 선언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죄' 의 근거는 최종적으로 빚어진 행위가 아니라 그 근원인 마음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두꺼운 갑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마치 나를 모든 죄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양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살인하지 말라' 는 명령은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딜레마요 고민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고민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렇기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당신은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함으로 사랑받았음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 누가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엄중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전후좌우로 도저히 살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은혜만이 문제의 답이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은혜만이 우리로 이 모든 얽메임에서 해방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물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것' 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실천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당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취해야 하는 삶의 원리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사랑한다' 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형제라고 지칭되어지는 우호적인 관계의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쉽지 않은 상대와의 관계를 넘어 결국 나에게 악한 행동으로 다가오는 원수들을 대하는 것에 까지 나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판단과 심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저 사랑하는 것 뿐이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온전히 사랑하기에만 바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